

제주도 지역 거주자의 주거 행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ial Behavior of Cheju Province

이 정 립 *

Lee Jeong Lim

김 봉 애 **

Kim Bong Ae

Abstract

Cheju province exposes a separated residential culture compared to the mainland area, since it has its own unique climate, natural feature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grasp the residential behavior, was based on the questionnaire to Cheju province people, using the approach by statistic verification. This study also focused and aimed on suggesting the basic data about housing plan which is appropriate to the climate, natural features requirement from inhabitants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the mainland area and Cheju provi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diversified applicative study on 'Ol-rae', 'Ma-dang', 'Yoo-young' and so forth that is traditional outside garden of Cheju is imperative, because in urban area people think traffics, vicinity, etc. are more significant, and in rural area people think occupying large outside space is more significant. Secondly, in the study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 housing, most of the people's was 'neutral' and in rural area quite a lot of negative reaction exposed. This is owing to the uniform introduction on residential style of the mainland area. Thirdly, housing plan should be considered family members' housing needs and provincial characteristics, meanwhile most of the people answered positively about the residential value which is considered very significant lately, for instance, security of privacy, appropriate plan for child's room.

* 정희원, 제주관광전문대학 실내건축과 시간강사

** 정희원,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I. 서 론

주택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근접 환경 중의 하나이므로 가족이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다른 주거 욕구가 생겨 주거 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홍형옥, 1994). 즉, 주거생활주기에 따라 주택은 거주자에게 쾌감 또는 불쾌감을 조성시키기 때문에, 거주자는 주택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을 비교해 본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주택을 찾게 된다. 거주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또는 불편함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주택 선택시 참고가 된다. 이것을 이경희 외(1997)는 가구의 특성 변화, 주거에 대한 기대, 주거 환경, 주거에 대한 불만, 불만족 또는 긴장 수준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가구는 주거 이동을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특히 제주도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바다에 의한 고립과 한정된 영토에 기인한 도서성의 영향으로 보인다(유철인, 1984). 또한 전통 가옥은 우리나라 주택보다는 기후·풍토적으로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일본의 류우큐를 포함한 남서제도와 비슷한 주거 양식을 보이고 있고(김광언, 1988), 지역특유의 '안·바끄리' 평면형(강영환, 1991)이라는 주거 문화를 형성시켰다. 이렇게 육지부와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육지부의 주거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주거 불만족 요인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제주도의 특수한 조건에 적합한 주택 설계, 나아가 주거 환경 계획에 이르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특수성에 적합한 쾌적한 주거 생활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행태와 관련하여 주택 선택, 주거 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거주인의 요구에 맞는 주택 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며, 나아가 육지부의 주거 행태와 비교 분석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선택 배경을

알아보고, 만족하는 정도, 주택 계획의 방법을 조사하여 지역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자 하였다.

먼저 주택의 선택 배경은, 경제적, 기술적, 위치적, 구조적인 4가지의 주택 정보(오찬옥·양세희, 1994) 중 위치적·구조적 정보를 기능적 조건으로, 경제적·기술적 정보를 경제적 조건과 기타 조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주생활 양식의 변인이 주택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심미영·고경필, 1996) 여기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한정시켜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거 만족도는 주거의 기능을 10가지 항목으로 분리하여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주택 계획은 주거의 기능 중 거주자가 개선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해 어떤 응답을 보이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주택 선택 배경은 어떠한가?
2.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3. 주택 계획의 방법은 어떠한가?

이러한 문제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제주시 지역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제주도 각 지역을 표본 추출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1996년 2월~6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동서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총 6개 지역으로 분리하였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각 360부씩(단, 남군 동쪽의 경우 240부) 총 2,040부를 배부하였고 1,495부가 회수되었으며 1,200부를 조사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통계 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통계적 방법으로 χ^2 (Chi-square) 검증을 사용하였고 조사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은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의 건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유호천, 1996) 우리나라의 공통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옥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지역 12.00%, 12.50%, 시외지역 28.00%, 32.00%, 31.50%, 29.00%로 시외지역이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축 면적은 20평 이상~30평 미만이 높게 나타났는데, 1990년 도시 지역 평균 주택 규모 15평에 비해 넓고, 현재 신도시 평균 주택 규모 25평과는 비슷한 면적이다 (윤복자·박남희, 1996).

대지 면적은 시지역의 경우 집합 주택 거주율이 높아 '개별적인 대지는 없음'의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고, 시외지역의 경우 평균 42.13%가 70평 이상이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제주도의 시외지역이 보편적으로 '올래, 마당, 우영'이라는 외부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넓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양건, 1991).

준공 이후의 연수는 시지역이 만 3년 이상 ~7년 미만의 비교적 전축 연수가 짧은 주택이 높게 나타났고, 시외지역은 만 15년 이상의 주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시외지역의 주택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 3년 미만의 주택은 북군 동쪽을 제외하고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새로운 주택의 보급은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구조에서 시지역은 집합 주택의 거주율이 높아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시외지역의 경우 조적조 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많이 보급되고 있는 조립식구조의 경우도 서귀포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1건 이상 나타났다. 특히 조립식 주택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에 기인한 새로운 주택 형태(남경숙, 1996)가 제주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의 소유 형태는 모든 지역에서 자신의 집에 거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주택의 선택

조사 대상자 집단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선택 배경에 대한 조사는 9개 문항으로 분석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건축을 계획한 경우도 현재의 주택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기능적인 조건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망이 좋아서 선택했다', '투자 가치 때문에 선택했다'는 문항을 제외하면 모두 유의한 차를 보였다.

1) 기능적 조건

가) 교통 문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시지역의 경우 교통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비율, 즉 '매우 그렇다'가 평균 31.25%로 나타났고, 시외지역의 경우 '보통이다'의 비율이 32.75%로 나타났다. 시지역은 교통 문제가 주택 선택의 중요 요인인 반면, 시외 지역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택 선택의 중요 요인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지역에 대한 결과는, 육지부 시지역의 조사에서 교통의 편리성이 주거 이동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와 같다(오찬옥·양세화, 1994).

나) 편의 시설

병원, 시장, 도서관 등 근린 시설의 유무에 대해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시지역에서 평균 32.25%로 육지부 시지역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오찬옥·양세화, 1994), 시외지역은 평균 43.00%가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해 근린 시설 때문에 주택을 선택하는 경향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 친인척과의 근접 거리

$P<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남군 서쪽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비율이 높아 대부분 친인척과의 근접 거리는 주택 선택시 고려되는 요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정원이나 텃밭의 유무

$P<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전체적

집합 주택이 많은 시지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3. 주거에 대한 만족도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 중 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있는 것은 안전성, 편리성, 가족간의 결속에 대한 기여도, 미적 감각에 대한 만족도,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문항이었다.

1) 안전성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P<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육지부 도시 지역에서 안전 관리에 대해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김선중, 1992)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고, 전반적으로는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이 많았다.

2) 편리성

편리성은 $P<0.05$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각 지역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제주시의 경우 긍정의 응답 비율을 합하면 48.50%로 절반 수준이 되며 가장 낮은 남군 동쪽의 31.50%에 비해 17%나 높은 결과를 보였다.

3) 가족간의 결속에 대한 기여도

이 항목 역시 $P<0.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 '보통이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조금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의 비율을 합할 경우 제주시 45.50%, 서귀포시 30.50%, 북군 서쪽 31.50%, 북군 동쪽 30.00%, 남군 동쪽 25.00%, 남군 서쪽 26.00%로 제주시의 경우가 높고 남군 동쪽이 가장 낮았다. 즉 가족간의 결속에 대한 기여도는 시지역에 비해 시외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 직업 등으로 인한 전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은 것과 일맥 상통한다.

4) 미적 감각

$P<0.01$ 에서 지역간에 유의한 차는 있으나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만족한다는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시지역은 19.50%의 비율을 보인 반면 시외지역은 10.50%로 시외지역이 미적 감각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5) 사생활의 보호 정도

$P<0.05$ 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나 각 지역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 만족도는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외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획일적인 주거 양식의 도입에 기인한 것이며, 육지부 농어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주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정영숙, 1995)와 일치한다.

4. 주택의 계획

주택 계획의 방법은 주택의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집을 지은 경우와 짓게 될 경우 관심 부분에 대한 문항을 만들 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1) 편리성

가) 주택 면적의 최대화

주택 면적 최대화의 문제는 $P<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서귀포시, 북군 동쪽, 남군 동쪽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제주시, 북군 서쪽, 남군 서쪽은 '조금 그렇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지역적 차는 선호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긍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수납 공간의 확보

수납 공간의 확보 문제는 $P<0.001$ 에서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차는 매우 극소하며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과거의 한옥과는 달리 생활 공간이 한정된 현대 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수납과 보관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박영순 외, 1997)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방 배치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방 배치의 문제는

2) 사생활의 보호

'사생활의 보호 측면에서 안방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문항은 $P<0.05$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제주시, 서귀포시, 남군 동쪽은 '매우 그렇다'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북군, 남군 서쪽은 '조금 그렇다'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항목도 역시 지역적 차는 근소하며 전체적으로는 긍정의 응답 비율이 높다.

3) 적응성

가) 아동에 대한 적합성 고려

$P<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남군 서쪽 지역에서만 '조금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36.50%를 나타냈고, 타지역의 경우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장에 대한 고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육지부 도시 주거에서 자녀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김순경·김종인, 1992)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나) 노인에 대한 적합성 고려

$P<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 동쪽에서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남군 서쪽의 경우만 '조금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력 향상과 별거 지향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노인에게 적합한 구조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 주거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윤정숙·김은영, 1994).

4) 사회성

가) 공동 사용 공간의 중심화

공동 사용 공간의 중심화는 $P<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나, 그 차는 매우 근소하여, 전체적으로는 긍정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 방 수의 최대화

같은 면적에서의 방 수의 최대화는 $P<0.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시외지역의 경우 '보통이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 채광과 통풍 계획

채광과 통풍의 문제는 $P<0.05$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 긍정적 응답이 많아 지역적 차이는 근소하며, 그 중 서귀포시가 83.50%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남군 서쪽은 71.00%로 가장 낮았다.

6) 기타 계획

'증개축시 전문가 의견 수렴'의 문항은 $P<0.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그 차는 매우 근소하며, 남군 서쪽 지역에서만 '조금 그렇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거 행태와 관련하여, 주택 선택, 주거 만족, 주택 계획의 세 가지를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여 제주도 지역의 주거 행태를 육지부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선택시 시지역의 경우 교통 문제, 균린 시설의 문제 등을 중요시하고 시외지역은 외부 공간의 확보를 중요시하므로 제주도 고유의 외부 공간인 '올래, 마당, 우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활용하여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주거 만족도에 있어서 '보통'이라는 중간적 입장이 많았고, 시외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더욱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거주인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주거 양식의 도입에 기인한 것이므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주택이 도입될 때 보다 효과적인 주거만족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주택 계획은 현대 주거 생활에서 중요시하는 프라이버시의 확보나 아동실의 개선책 등 대부분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고유한 주거문화와 거주양식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를 육지부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 특수성과 거주자의 요구에 맞는 제주도 특유의 평면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의 측정 문항은 완전히 표준화된 것은 아니며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VII. 참고문헌

1.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서울:기문당, 1991.
2.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족지,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29편, 1988.
3. 윤복자 외 편, 주거학 총서(I), 서울:신광출판사, 1997.
4. 윤복자·지순, 기초주거학, 서울:신광출판사, 1992.
5. 윤장섭, 주거학, 서울:교문사, 1994.
6. 이경희 외, 서울:주거학개설, 문운당, 1997.
7. 강순주·이용례, "주택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Ⅱ)", 한국주거학회지 3권2호, 1992.
8. 고경필·윤재웅, "주거가치와 주생활양식에 따른 주택구매행동 분석", 한국주거학회지 5권2호, 1994.
9. 김선중,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거주자 의식", 한국주거학회지 3권2호, 1992.
10. 김순경·김종인, "도시주거 자녀실에서의 프라이버시 행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3권2호, 1992.
11. 남경숙, "주거공간에 나타나는 하이테크 놀로지의 기원", 대한가정학회지 34권6호, 1996.
12. 박영순 외, "주택규모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수납물량의 차이와 이에 따른 수납 공간 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5권3호, 1997.
13. 심미영·고영필, "주생활양식이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권2호, 1996.
14. 양건, "제주지역 현대 단독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5. 오찬옥·양세화, "주택정보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5권2호, 1994.
16. 유옥순, "산간지대 농가의 부엌공간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3권2호, 1992.
17. 유철인, "일상생활과 도서성: 제주도 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 1984.
18. 유호천,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냉방시스템평가", 한국생활환경학회지 3권4호, 1996.
19. 윤복자·박남희, "신도시로 이주한 거주자의 주거수준과 주거만족도 변화 분석", 한국주거학회지 7권1호, 1996.
20. 윤재웅, "도시 단독주택 마당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권1호, 1996.
21. 윤정숙·김은영, "노인시설의 실내 온열 환경과 주관적 반응", 한국인간온열환경학회지 1권1호, 1994.
22. 이용섭, "아파트 공간사용규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23. 정영숙, "지역별 주거만족도와 생활환경 만족도", 한국주거학회지, 6권2호, 1995.
24. 조우현, "집단공동주택의 발전대책",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25. 홍형옥, "한국가족의 주거조절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5권2호, 1994.
26. 제주도, 제주도 통계연보, 1994.